

윤복진의 아동문학과 월북*

류덕제**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맺음말 |
| 2. 윤복진의 아동문학과 월북 | |

1. 머리말

해방 후 다수의 문인들이 월북했다. 아동문학가들도 마찬가지다. 송영(宋影), 박세영(朴世永), 현덕(玄德), 홍구(洪九), 엄흥섭(嚴興燮), 정청산(鄭靑山), 박아지(朴芽枝), 이동규(李東珪), 김우철(金友哲), 신고송(申孤松)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개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했고 카프(KAPF)에 가맹했거나 동조했던 문인들이었다. 이들의 작품들도 대체로 계급투쟁을 바탕으로 한 현실비판적인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월북했다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고 어찌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것임.

** 대구교대, ryudj@dnue.ac.kr

월북 아동문학가 가운데에는 윤복진(尹福鎭)도 들어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동요(동시)와 동화 작품을 다수 발표하였다. 윤복진의 작품만으로 된 동요곡집만 해도 박태준(朴泰俊)이 곡을 붙인 『중중떼떼중』(1931), 『양양범버궁』(1932)과 두 동요곡집에서 가려 뽑은 『도라는 배』(1934), 그리고 『물새발자욱』(1939), 해방 후의 『초등용가요곡집』(1946) 등 도합 5권이 있다. 해방 후에는 10곡의 동요곡을 포함한 『꽃초롱별초롱』(1949)이란 동요집을 발간했다. 이 외에도 윤복진이 편찬한 『동요곡보집』(1929)에 11편, 정순철(鄭淳哲)이 편찬한 『(동요집) 참새의 노래』(1932)에 5편, 홍난파(洪蘭坡)의 동요곡집인 『조선동요백곡집』(상:1930, 하:1933)에 10편, 강신명이 편찬한 『아동가요곡선삼백곡』(1936)에 51편, 박태준의 『박태준동요작곡집』(1949)에 15편, 권태호의 『국민가요집』(1949)에 4곡 등이 실려 있는데, 중복 수록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윤복진의 많은 작품이 노래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과 동요계에서 차지하는 윤복진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카프 소속 또는 그에 동조했던 아동문학가들의 작품과 윤복진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계급투쟁적인 이념을 담고 있거나 현실 비판적인 내용이 많지 않은 점이다. 동시대의 극작가이자 아동문학 비평가인 신고송은 대놓고 윤복진의 무계급성을 비판하기까지 했다. 더러 민족 현실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윤복진 작품의 주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해방이 되자 윤복진의 행보는 썩 달라졌다. 1945년 좌파 문학단체인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조선문학건설본부 위원이 되었고, 12월에는 조선문학동맹에 가담하여 아동문학부 사무장이 되었다. 아동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밝힌 여러 비평문에도 지금까지의 문학활동에 대한 자기반

성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내용이 빠지지 않는다. 동요나 시 작품에도 해방공간의 당대 현실을 직접 반영하는 작품을 여럿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1950년 6·25전쟁 도중 월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윤복진의 월북을 놓고 여러 해석이 있다. ‘낮꿈꾸기’ 혹은 ‘좌익 심파’라 하여 허망한 이상론을 좇았다는 해석과, 동향의 친구 신고송을 따라 월북했다는 주장, 해방 공간의 좌파 문학 활동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도피적 월북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윤석중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월북했다는 주장까지 있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도 있지만 문제점 또한 많다. 현재의 결과가 옳은 것이라는 관점에서 당대의 ‘선택’을 평가한 것이거나, 단편적인 자료나 사소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과도한 추론을 하거나 확대해석한 점이 그렇다.

이 글의 목적은 윤복진의 월북 이유를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월북이란 한 개인의 정치적 선택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작품과 문학론 그리고 문단적 행보를 종합해 보면 그의 문학관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월북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세상에 느닷없는 일이란 없는 법이다. 한 개인의 결단이나 선택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하였을 것이다. 해방공간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여건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윤복진의 월북이란 선택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의 일제강점기 작품과 문학론 그리고 해방 후 문단 행보와 작품 및 문학론의 변모 양상 등을 종합해 보아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나 당사자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추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관점과 광범위한 근거 자료만이 결론의 정당성을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2. 윤복진의 아동문학과 월북

지금까지 윤복진의 월북에 대해 논란을 보인 것은 그의 ‘선택’ 곧 월북이 의외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서정적 동심에 바탕을 둔 작품을 써 왔고, 일제강점기 때 선풍처럼 불어왔던 계급문학에 기울어지지도 않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의 월북이라는 정치적 선택이 의외라고 보는 시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1) 윤복진의 월북에 대한 기존 논의 비판

윤복진의 월북에 대해 처음 의견을 밝힌 사람은 정영진이다. 윤복진의 월북을 두고 ‘반전극(反轉劇)’으로 요약했다. 해방 후 윤복진이 “지난날의 서글픈 感傷과 咏嘆을 잊어버리자”¹라고 한 말을 아동들에게 계급의식을 심어주겠다는 각오라 읽고 이는 “감성에 사로잡혀 대세에 편승”하는 것으로 그를 “심정적 좌경주의자, 곧 좌익 심파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1949년경 보도연맹(保導聯盟)에 가입하여 전향하였음에도 “적치(敵治)의 부역”이 쟁기어 결국 “강제 반·자의 반”으로 월북하였다는 것이다.²

보도연맹에 가입한 문인들의 명단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윤복진의 보도연맹 가입 사실은 정영진의 주장 외에는 분명히 확인된 바 없다. 윤복진이 해방 후 좌익 사상에 경도되었던 점은 여러 문건으로 확인되는데 지속적이면서도 분명해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949년경 보도연맹에 가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 남한의 정치적 상황이 강제한 측면이 컸을 것이다.³

1 윤복진, 「跋文—나의 兒童文學觀」, 『꽃초롱 별초롱』, 아동예술원, 1949, 122면.

2 정영진, 「동요시인 尹福鎭의 反轉劇」, 『현대문학』, 제454호, 1992년 10월호, 372~374면 참조.

같은 아동문학가인 송완순(宋完淳)은 보도연맹에 가입했지만 6·25전쟁 시기에 월북했다.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 맹원이었던 이원수(李元壽)는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최병화(崔秉和, 조선문학자대회 참가)와 함께 “피신을 해야 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⁴을 듣고 함께 월북을 하려다가 되돌아오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일제강점기부터 강력한 계급문학적 입장을 견지한 채 아동문학론을 전개하고 작품을 발표했으며 해방 후에도 좌익에 가담하였던 이주홍(李周洪,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 중앙집행위원, 조선문학가동맹 아동문학부 위원), 김병호(金炳昊, 조선문학자대회 참가), 손풍산(孫楓山,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 맹원), 홍은성(洪銀星, 洪曉民,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 맹원, 조선문학자대회 참가), 김태오(金泰午, 조선문학자대회 참가), 김광균(金光均, 조선문학건설본부, 조선문학자대회 참가, 조선문학가동맹 시부 조직부장), 윤석중(尹石重, 조선문학가동맹 아동문학부 위원) 등과, 해방 전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중심 인물이었던 정홍교(丁洪敎, 오월회 창립, 조선소년총동맹 위원장)는 월북하지 않았음에도 남한에서 대학교수, 작가, 언론인 등으로 별 탈 없이 살아남았다. 심지어 일제강점기에는 카프(KAPF) 중앙집행위원이었고 해방 후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 중앙집행위원, 조선문학가동맹 서기장이었던 권환(權煥)은 월북하지 않고 마산(馬山)에 남아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두고 볼 때 윤복진이 단지 ‘좌익 심파’였기 때문에 월북했다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고, ‘적치의 부역’은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다른 문인들의 경우를 윤복진에게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

3 윤복진의 보도연맹 가입에 대해서는, 정영진이 「동요시인 윤복진의 반전극」(373~374면)에서 밝히고 있다. 이 시기 남로당원 자수기간은 1949년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로 했다가 다시 11월 7일까지로 1차 연장하고, 이어서 11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고, 진북(全北)과 군(軍) 등에서는 각각 12월 15일, 12월 31일까지 연기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1949년 11월 1일자, 6일자, 12월 9일자, 16일자 참조) 이러한 압박 속에 윤복진도 자수와 보도연맹 가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4 이원수, 「동일승천(冬日昇天)한 나비 최병화 형」, 『이원수아동문학전집 29 동시동화작법』, 웅진출판주식회사, 1984, 176~177면.

다. 이런 점에서 정영진의 주장은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단편적인 사실을 확대해석한 경우라 할 것이다.

정영진의 ‘좌익 심파’와 유사한 견해가 조두섭이 말한 “낮 꿈꾸기”일 것이다. 블로흐(Bloch)의 ‘낮 꿈’ 개념을 빌려왔는데, “이 세상에서 아직 의식되지 않은 것을 상상을 통해 발견하려는, 즉 그리움의 환유”가 ‘낮 꿈’이라는 것이다.⁵ 윤복진이 월북한 것 곧 계급주의 이데올로기를 선택한 것은 ‘낮 꿈’의 실천적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조두섭의 주장은 윤복진의 연보를 재구성하고 문학과 작품을 면밀하게 읽은 후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필에 가까운 추론과 부분적 사실에 기초한 확대해석이 지나치다. 해방 전 윤복진이 발표한 작품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해방 직후 여러 차례 발표되었던 문학과 작품도 꼼꼼하게 살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종찬은 두 차례에 걸쳐 윤복진의 월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어린이』 애독자 시절부터 동요운동을 함께 벌인 동향(同鄕)의 문우(文友)인 “신고송과 관련”이 있고 해방직후 “지배적인 경향을 좇아 움직인 면이 크다”⁶고 보았다. 두 번째는 윤복진의 “월북은 석중과 목월이 따라올 수 없는 윤복진만의 득의의 행보”이고, 기존의 통설인 ‘자의반 타의반으로 월북했다’는 통설과 달리 “‘자의(自意) 쪽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근거’⁷라 하였다.

첫 번째 주장은 너무 단순하다. 경상남도 울산군 언양 출신의 신고송과 경상북도 대구 출신의 윤복진이 동향도 아니거니와, 신고송이 대구에 머물렀던 기간은 대구사범학교 입학 때인 1925년부터 졸업 1년 뒤인 1929

5 조두섭, 『낮꿈꾸기의 비애, 윤복술』, 이강언, 조두섭 편, 『대구경북 근대문인 연구』, 태학사, 1999, 117면.

6 원종찬, 『동요시인 윤복진의 작품세계』,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2001, 307면.

7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 청동거울, 2012, 348면.

년 초중반경까지이다. 이 기간 중인 1926년경 신고송은 윤복진이 주도한 ‘등대사’ 활동을 같이 하기도 했으나, 1929년 하반기에는 불온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근무하고 있던 대구공립보통학교에서 경상북도 청도(淸道)의 유천학교(楡川學校)로 전근을 갔고 1930년 구금과 동시 교원생활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된다. 윤석중에 따르면 “같은 대구에 사는 윤복진과 신고송(말찬)은 서로 사이가 나빠서 신은 윤의 동요를 신문 동요 월평에서 ‘부르짖’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노라고 번번이 나무랐”⁸다고 하였고, 송완순은 “確實히 申君은 尹福鎭氏에게 對하여 私의 感情을 가진 것 같다.”⁹고 하는 등, 신고송은 여러 차례 윤복진의 작품에 대해 험담에 가까운 비판을 하기도 해¹⁰ 이념과 행동을 함께 한 동지라 보기 어렵다. 게다가 신고송의 월북 시기는 대체로 1946년 4월경으로 보고 있어 1950년 6월에서 9월경 월북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윤복진의 북행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지배적인 경향을 좇아 움직인 면’이라는 주장은 그럴 수도 있으나 반론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윤석중, 이원수는 물론이고,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계급주의 아동문학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주홍, 정홍교, 김태오, 홍은성, 김병호, 양창준(梁昌俊, 梁雨庭), 손풍산 등이 월북하지 않고 남한에 남을 수 있었던 점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윤석중과 박목월에 대한 열등감에서 월북을 결행했다는 두 번째의 주장은 「석중과 목월과 나—동요문학사의 하나의 위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윤복진의 월북 이유를 추론한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 있는 추론일 수는 있으나 문면을 따라 읽어 보면 과장된 해

8 윤석중, 『어린이와 한평생』, 범양사출판부, 1985, 101면.

9 九峰山人, 「批判者를 批判—自己辯解와 申君 童謠觀評(四)」, 《조선일보》, 1930.2.23.

10 申孤松, 「새해의 童謠運動—童心 純化와 作家誘導(一)」, 《조선일보》, 1930.1.1), 申孤松, 「童心에서부터—旣成童謠의 錯誤點, 童謠詩人에게 주는 몇 말(전8회)」, 《朝鮮日報》, 1929.10.20~29) 등이 대표적이다.

석으로 보인다. 동요문학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석중과 목월에게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이념과 형식을 만들고 달라져보자는 청유형(請誘形)의 글이기 때문이다. 윤복진의 월북을 ‘자의 쪽에 방점’을 두는 원종찬의 견해는 합당한 해석으로 보이나, 정영진이 이미 “지향(志向) 월북 문인”¹¹으로 분류하여 자진 월북임을 분명히 한 바 있어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윤정은 1930년 윤복진의 ‘스무 하루 밤’, 「기차가 달려오네」, 「송아지 팔러가는 집」 등 현실 인식을 드러내 보이는 세 편의 동요를 들고 “계급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투철한 사상무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시세계가 이전의 세계보다 확장”되었다고 본다. 이에 근거해 “1930년을 기점으로 한 그의 경향시들이 이후 그의 행적과 문학관의 변모에 있어서 귀중한 단초”가 되었다고 보고, 윤복진이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과학’을 기대하고 북행을 결심”¹²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주장은 앞의 주장들과는 달라 새롭기는 하나 객관적 근거자료가 단편적인 데다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일반화하기에 미흡하다.

2) 해방 후 윤복진의 문단 행보와 아동문학의 변모 양상

(1) 해방 후 윤복진의 문단 행보

해방 후 윤복진의 아동문학관 혹은 문학론은 상당한 변모를 보인다. 문학관의 변화는 반드시 그의 행보와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

11 정영진, 「월북 입북 남북 재북 문인 행적기」, 『다리』, 1989년 10월호, 249~251면.

12 최윤정, 「북으로 간 동요시인, 윤복진」,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7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09.12, 141면.

서 윤복진의 해방 후 행보를 재구성해 보면 문학관의 변모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선택 곧 월북의 이유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방 후 윤복진의 문단 행보는 1945년 12월 1일에 간행된 신문인 《아동문학》의 ‘담화실’을 집필하고 있는 데서 처음 확인된다. 여기에 각 학년별로 또는 학교별로 아동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동문학(문화)연구회를 조직하여 끊임없이 연찬하되 “우리 兒童文學委員會와도 有機的 連絡을 가지고 서로 研究하고 서로 意見을 交換”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성태(金聖泰)가 곡을 붙인 동요곡 「우리말 우리글로」와 「自然科學 별나라 이야기」(金貴環), 그리고 「조선독립을 위해 싸우신 어른들」(金水鄉) 등을 발표하고 있다.

알다시피 《아동문학》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조선문학건설본부(이하 ‘문건’) 아동문학위원회의 기관지이다. 윤복진은 정지용(鄭芝溶), 양미림(楊美林), 현덕(玄德), 임원호(任元鎬), 이원조(李源朝)와 더불어 편집위원이었다.¹³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는 1945년 8월 18일 ‘문건’을 위시하여 조선음악건설본부, 조선미술건설본부, 조선영화건설본부 등이 연합하여 발족한 것이다. 이보다 이틀 앞서 1945년 8월 16일 친일문인 단체였던 조선문인보국회의 간판이 내려진 한청빌딩에 ‘문건’이 세워졌다. 임화, 이태준, 김남천, 이원조 등이 주도하였다. 그런데 1935년 카프(KAPF)의 비해소파에 속했던 이기영(李箕永), 한효(韓曉), 송영(宋影), 윤기정(尹基鼎), 이동규(李東珪), 박세영(朴世永), 홍구(洪九), 홍효민(洪曉民) 등이 1945년 9월 17일 조선프로테라리아문학동맹(이하 ‘동맹’)을 조직하여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에 반발한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의 지지를 얻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문건’과 ‘동맹’이 1945년 12월 13일 조선문학동맹(朝鮮文學同盟)

13 「兒童文學委員會서 『兒童文學』發刊一月二回, 十二月 初부터」, 《중앙신문》, 1945.11.22.

으로 통합하기 위한 결성식이 개최되었다. 윤복진은 조선문학동맹의 아동문학위원회 서기장(위원장은 鄭芝溶)에 임명된다.¹⁴

이듬해인 1946년 2월 8일과 9일 양일간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조선문학자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윤복진은 이를 동안 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곧이어 2월 하순경 조선문학가동맹 시부(詩部)에서는 ‘시인의 집’을 결성하였는데 윤복진은 조벽암(趙碧巖), 김기림(金起林), 김광균(金光均), 박세영(朴世永), 박아지(朴芽枝), 임병철(林炳哲), 오장환(吳章煥), 한백곤(韓百坤), 조운(曹雲), 신석경(辛夕汀), 이몽악(李庸岳), 임학수(林學洙), 윤곤강(尹崑崗), 이한직(李漢稷), 김병호(金炳昊), 박석정(朴石汀), 박산운(朴山雲), 김상훈(金尙勳), 여상현(呂尙玄) 등과 함께 참가하였다. ‘시인의 집’은 작고문인 기념비 건립, 계간 시집 발행, 시인의 밤 개최, 현대시 강좌 개최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¹⁵

1946년 9월에 동문사(童文社)가 주최하고 조선조형예술동맹과 조선문학가동맹이 후원하여 아동창작품을 현상 모집함에 있어 정지용, 이태준, 현덕, 김동석, 김남천, 박태원 등과 함께 문학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¹⁶

우익계의 단체에도 이름이 올라 있지만 의사와 무관하게 추대되거나 이름만 올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6년 3월 13일 조선문학가동맹에 대항했던 우파의 중앙문화협회를 중심으로 전조선문필가협회(全朝鮮文筆家協會)가 결성되었는데 ‘추천회원’에 윤복진의 이름이 올라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단체에 가입했던 소장 문인들 중심으로 4월 4일 순수문학 단체를 결성한 것이 조선청년문학가협회(朝鮮青年文學家協會)이

14 「조선문학동맹 결성, 각부 위원 결정」, 《자유신문》, 1945.12.25.

15 「詩人の 집 建設」(《동아일보》, 1946.2.21; 《자유신문》, 1946.2.23), 「現代詩 講座」(《현대일보》, 1946.5.31), 「詩의 밤 大盛況」(《동아일보》, 1946.4.22), 「作故詩人碑—詩人の 집」에서 計劃」(《중앙신문》, 1946.2.20) 참조.

16 「兒童創作品 募集」, 《자유신문》, 1946.9.5.

다. 이 단체의 아동문학부는 박영중(朴泳鍾), 송남헌(宋南憲), 서정태(徐廷太), 박두진(朴斗鎭), 김종길(金宗吉), 이원섭(李元燮) 등이 맡은 것으로 보더라도 윤복진의 실질적인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¹⁷ 마찬가지로 4월 30일에 결성된 전국아동문학가협회(全國兒童文學家協會)도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 단체로 발기인이 박영중, 김동리, 윤석중 외 7인이고 윤복진은 추대회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¹⁸

이 시기에 대구에서는 좌익계열의 경북문화건설연맹(慶北文化建設聯盟, 위원장 李明錫, 부위원장 白基萬)이 결성되었다(1945.12.16). 이후 여러 단체를 규합하여 조선문화단체총연맹(朝鮮文化團體總聯盟) 경북도연맹(위원장 李應壽)이 결성되었는데 3인의 부위원장 중 한 사람이자 24인의 집행위원에도 윤복진의 이름이 올라 있다. 그리고 경북도연맹의 10개 동맹 중 문학가동맹 위원장은 윤복진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우익은 경북예술가협회(慶北藝術家協會, 위원장 崔海鍾, 문학부장 朴木月)를 결성하였고(1946.5.27), 『아동』을 발간한 조선 아동회(朝鮮兒童會, 회장 李永植, 이사 朴泳鍾 외, 1945.12.30)와 죽순시인구락부(竹筍詩人俱樂部, 대표 李潤守, 1945.10.25) 등이 결성되었지만 윤복진의 이름은 없다.¹⁹ 이상에서 보듯이 해방 후 윤복진은 주로 좌익계의 문학 단체에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48년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된 후 1949년 4월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이 창설되고 6월 5일에 공식 결성식이 개최되었다. “보도연맹은 좌익 전향자를 보호하고 지도함으로써 과거 좌익 활동에 가담했던 죄를 씻어주고 온전한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표방”²⁰한 단체였다. 결성 이후 좌

17 「전조선문필가협회 결성」, 《동아일보》, 1946.3.11. 아동문학부 위원 명단은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25면.

18 「전국아동문화작가협회 결성」, 《경향신문》, 1949.4.30. 단체의 이름이 ‘전국아동문화작가협회’와 ‘전국아동문학가협회’(《경향신문》, 1949.5.3)로 혼용되고 있으나 「작품으로 정서함양—아동문학가협회」(《동아일보》, 1957.4.22)에도 ‘아동문학가협회’로 소개되어 있어 후자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19 『경북연감(단기4281년판)』, 영남일보사, 1947년 12월 31일 발행, 409~411면.

익 전향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가맹이 이루어졌는데 문인으로는 정지용(鄭芝溶)이 조선문학가동맹을 탈퇴하고 1949년 11월 4일 처음 자진 가맹하였다. 1949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남로당원 자수자 가운데 ‘문학동맹’ 소속은 94명이 확인된다.²¹ 자수자는 명단이 공개된 터라 국민보도연맹에 가맹한 숫자로 보아도 될 것이다. 국민보도연맹 경상북도연맹은 11월 1일 대구경찰서에서 발족식을 갖고 이어 11월 6일 대구공회당에서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1949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에 12,196명, 경상북도에 자수자가 1,938명이었다고 한다. 1949년 11월 30일자로 마감한 자수자 주간에 국민보도연맹에 가맹한 문인은 “鄭芝溶(詩人), 鄭人澤(文學家), 宋完淳(同), 楊美林(同), 崔秉和(同), 嚴興燮(同), 朴露兒(劇作家)”²² 등이 확인된다. 윤복진의 보도연맹 가맹은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데 정영진은 1949년에 보도연맹에 가입하고 재차 상경하여 첩거하였는데 “반공체제에 순응하여 살 작정이었던 듯하다”며 「우리 대장 들어온다」가 그 신호라는 것이다. 정영진은 이 시를 잘못 인용하고 있어 혼란을 빚었는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나팔소리 뿔뿔 북소리 둥둥
 조선군사 들어온다 우리대장 들어온다
 어깨에총 허리에칼 거름높여 척척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조선군사 들어온다 우리대장 들어온다

20 김선호,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가입자」, 『역사와 현실』 제45호, 한국역사연구회, 2002, 326면.

21 「서울시민 一萬二千-學生 勞動層이 首位」, 《동아일보》, 1949.12.2.

22 「著名한 文化人의 自進加盟이 異彩」, 《동아일보》, 1949.12.1. 정영진은 이 외에도 설정석, 김상훈, 김철수, 강형구, 임서하, 윤태웅, 김병달, 배정국 등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정영진, 「월북 입북 남북 재북 문인 행적기」, 257면.

일본군사 물너가라 어서어서 물너가라

나팔소리 뿔뿔 북소리 둥둥

조선군사 들어온다 우리대장 들어온다

어깨에총 허리에칼 거름높여 척척

경복궁을 열이라 창덕궁을 열이라

조선군사 들어온다 우리대장 들어온다

일본국기 잡아떼고 조선국기 내걸어라²³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를 한 것인지는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으나 1946년에 발간된 『초등용가요곡집』에 처음 보인다. 이어 『박태준동요작곡집』(음악사, 1949)에도 수록되었는데 『초등용가요곡집』과 동일한 내용이다. 『초등용가요곡집』은 등사판으로 발간되어 따로 간기(刊記)가 없으나 앞표지에 발간연도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 발문격인 ‘어린벗을 사랑하는 親愛하는 同志들에게!’가 있는데 그 끝부분에 ‘1946.3.25.’이라 명기하고 있어 정확한 발간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이 시는 시기적으로 보도연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정영진은 둘째 행과 후렴 첫째 행의 ‘조선군사’를 ‘대한군사’로, 후렴 부분을 “공산군은 물너가고 대한군사 들어온다”(1절), “공산국기 잡아떼고 태극기를 내걸었다”(2절)라 하고는 보도연맹 체제에 순응하려고 “한때 반공가사를 썼”²⁴다고 풀이했으나 엄연한 오류였다. 이 오류는 다른 연구자의 또 다른 오류를 불러오기도 했다.

정치적 압력 때문에 보도연맹에 가입한 그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웠을 것이다.

²³ 윤복진 편, 『초등용가요곡집』, 파랑새사, 1946.3, 2면.

²⁴ 정영진, 「동요시인 尹福鎭의 反轉劇」, 375면.

불과 일 년 후에는 또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의 작품을, 이번에는 뒤바뀐 세상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표하게 될 줄을 그도 알았을까? 그에게 8·15 해방부터 6·25 전쟁까지는 수차례 변주의 세월이었다.²⁵

또 곡보의 아래쪽에 윤복진이 적어 놓은 글귀를 보더라도 「우리 대장 들어온다」가 보도연맹과는 무관함을 잘 알 수 있다.

이 노래는 우리의 偉大한 民族 解放 戰士의 歡迎歌의 하나입니다. 曲은 옛날 우리 朝鮮의 軍歌의 리듬을 基礎로 作曲한 것입니다.

“어께에총 허리에칼 거름놓여 ……”에서는 體操 号令式으로 리듬칼하게 불려야 하겠습니다.²⁶

보도연맹의 소용돌이 속에 윤복진은 자신의 동요를 추려 모은 동요집 『꽃초롱 별초롱』을 묶어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아동문학관을 반영하고 “兒童은 어디까지나 現實의 人間”²⁷이라면서도 모두 서정적인 작품들로만 선정하였다. 아미치스(Amicis), 버넷(Burnett), 셰익스피어(Shakespeare), 스토우(Stowe)의 명작 네 편을 모아 엮은 『세계명작아동문학선집』(1949)을 펴냈고, 윤석중, 조지훈, 서정주 등과 함께 『소학생문예독본』(1949; 3학년치 대표 엮은이)을 엮어냈으며, 대구에서 발간된 아동 잡지 『아동』과 『새싹』에도 「작란구레기 바람」, 「포도 남에서」, 「약물이 풍, 풍」, 「파란세상」, 「구구구구」 등의 서정적인 동요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채를 띠는 것은 『轉落의 歷史』(모던출판사, 1950)를 번역 출판하고 있는

25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 청동거울, 345면.

26 윤복진, 『초등용가요곡집』, 2면.

27 윤복진, 「발문—나의 아동문학관」, 121면.

점이다. 이 책은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의 주필 모리 쇼조(森正藏: 1900~1953)가 쓴 『轉落の歴史: 第二次世界大戦の真相』(鱒書房, 1948)이 원제이다. 이 책은 일본인이 “中國侵略戰爭에서 스타-트하여 太平洋戰爭에서 거꾸러진 侵略者 日帝의 假面을 忌憚없이 벗기며 또 侵略의 首魁 日本 軍閥의 橫暴性과 獨裁性을 赤裸裸하게 暴露하며 辛辣한 批判”을 가한 책이다. 윤복진은 일제강점을 “어두운 歷史의 空欄”으로 보고 “어두운 空欄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이날에 어두운 空欄에 對하여 날카로운 科學的 解剖와 더불어 嚴肅하고 辛辣한 批判”²⁸을 가하기 위해 번역하였다고 말한다.

이상에서 윤복진의 문단 행보를 사실 위주로 살펴보았다. 주로 좌익계열의 단체에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고, 문단 혹은 정치적 행보는 일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해방 후 윤복진의 아동문학과 변모 양상

① 아동문학 작품의 변모 양상

지금까지 윤복진의 아동문학을 두고 “해맑은 동심과 토착정서가 한데 어우러진 이런 작품들은 윤복진 동요시가 지니는 독특한 미학”²⁹이라거나, “전반적으로 抒情的 自然親和의 경향”으로 보면서도 “당시의 悲劇的 현실을 童心으로 美化시키려 했던, 소위 天使主義나 樂天主義的 思考와는 對立的인 것으로 강렬한 鬭爭意識이나 階級意識을 童心에 심으려 했던 左傾 아동문학 등,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純粹文學으로서의 아동문학을 堅持”³⁰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대체적이다. 일제강점기 아동문학은 대

28 「譯者의 말」, 김수향 역, 『轉落의 歷史』, 모던출판사, 1950.

29 원종찬, 「동요시인 윤복진의 작품세계」, 303면.

30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287~289면.

체로 계급적 현실인식의 아동문학과 동심주의적 아동문학의 두 경향으로
가른다. 윤복진의 경우 대부분의 작품이 동심주의 작품에 가깝다. 서정적
자연 묘사나 순진한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 후 윤복진의 동요를 보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많다. 당대의 주요 현실이 그때그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속했던 문학 단체의 방향성에 충실한 결과 수동적인 추종일 수도 있고, 민
족주의적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문학에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며, 두 가지
가 결합된 것일 수도 있다. 해방 후 현실 인식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윤복
진의 작품들은 아래와 같다.

1	無窮花 피고피고	『조선주보』	1945.11.19	
2	우리 집	《중앙신문》	1945.12.7	
3	우리말 우리글로	『새동무』	1945.12	창간호
	(동요곡)우리말우리글로	《아동문학》	1945.12	金聖泰 曲, 창간호
	(동요곡)우리말우리글로	『初等用歌謠曲集』	1946	尹福鎭 編
4	돌을돌을 골라내자	《중앙신문》	1945.12.13	
5	(建國童謠)새나라를 세우자	《자유신문》	1946.1.1	
6	(동요곡)트러스티원이 뭐냐! 一反託統一全線結成의 노래	《자유신문》	1946.1.5	
7	자장 자장 자-장-火田民아들 딸의자장노래	『藝術』	1946.2	
8	(동요곡)우리대장들어온다	『初等用歌謠曲集』	1946	朴泰俊 曲
	(동요곡)우리대장들어온다	『박태준동요작곡집』	1949	朴泰俊 曲
9	(民謠)목수는집을짓고	《대구시보》	1946.10.29	
10	(民謠)자네집은밭홀갈어	《대구시보》	1946.11.16	
	(民謠)자네집은밭홀갈어	《서울신문》	1946.11.17	
	농부의 노래	『국민가요집』	1949.9	권태호 작곡집
11	鎭魂曲—憤死한 學兵의 어머니를 代身하여	『1946년판 朝鮮詩集』	1947.3	조선문학가동맹 편, 아문각, 1947
12	일터로 일터로	『국민가요집』	1949.9	권태호 작곡집

13	기억니은 배우세	『국민가요집』	1949.9	권태호 작곡집
14	누에를 치세	『국민가요집』	1949.9	권태호 작곡집

「無窮花 피고피고」는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朝鮮文化建設中央協議會)에서 제공한 것으로 좌익계 집필자의 원고를 많이 실었던 『조선주보(朝鮮週報)』에 실렸던 작품이다.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삼천리 방방곡곡에 피었고 이제 해방이 되고 금수강산 삼천리에 무궁화가 핀 것이 좋다는 내용이다. 「우리 집」은 좌익계 신문인 《중앙신문》에 수록한 것으로, 해방이 되자 쫓고추, 햇마늘, 박 바가지, 호박, 벚شم이 쌓인다는 내용과 짚을 빼앗겨 지붕을 이지 못했는데 3년 만에 이영을 이었고, 징용 갔다 돌아온 오빠가 담을 쌓고 아이들은 한글을 외우며 태극기는 동리 앞에 높이 달렸다는 내용이다. 같은 신문에 「돌을 돌을 골라내자」도 실렸는데 욕심쟁이 쌀장사가 쌀에다 돌을 섞어서 팔듯이 일본이 우리말을 없애자고 일본말을 많이 섞어 놓았는데 골라내어 없애자는 내용이다. 좌익계 아동문학 잡지였던 『새동무』에 실었던 「우리말 우리글로」는 우리말로 노래를 짓고 이야기 짓는데 그곳에 조선 혼이 깃들어 있다는 내용이다. 이동요는 김성태가 곡을 붙여 조선문학가동맹 아동문학위원회에서 발간한 《아동문학》에 다시 수록하였다. 역시 좌익계 신문이라 할 수 있는 《자유신문》에 수록된 「새나라를 세우자」는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여 새 나라를 세우자는 내용이다. 같은 신문에 실린 「트러스티 싫어 뭐냐!」는 해방 공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좌익세력들은 우익과 같이 처음 신탁통치안이 나왔을 때 이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1945년 12월 28일 박헌영이 북한을 방문하여 5일간 체류하며 김일성을 만나고 오후 조선공산당은 그간 반탁의 입장이었다가 1946년 1월 2일부터 찬탁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우익은 신탁통치에 의한 통일국가 수립이 자신들

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여 반탁을 주장하였고, 처음 반탁을 주장하던 좌익은 미국과 소련의 협조하에 신탁통치를 해야만 통일 독립국가 수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모스크바 삼상회의(三相會議)에 대해 지지 곧 찬탁으로 돌아선 것이다.³¹ 「트러스티쉴이 뭐냐!」는 반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급박하게 돌아가는 해방 공간의 사정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발표 일자가 1946년 1월 5일인 것으로 보아 이 노래를 짓고 박태준이 곡을 붙여 발표한 것을 감안할 때 좌익도 한창 반탁을 주장할 때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신탁통치를 모욕으로 생각하고 모두 뭉쳐 이를 물리치자는 내용이다. 「자장 자장 자-장—火田民 아들딸의 자장노래」는 아버지는 화전을 일구고 어머니는 씨를 뿌려 새 삶을 시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아기는 착하게 잘도 자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 또한 좌익계 잡지인 『예술』에 실었다. 대구에서 발간한 신문인 《대구시보》에 수록된 「목수는 집을 짓고」와 「자네 집은 빗흘 갈어」는 해방된 나라에서 모두 제 분야에서 모두 열심히 일하자는 내용과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서로 이웃끼리 나누어 먹고 입고 살자는 내용이다. 「우리대장 들어온다」는 대구에서 발간한 『초등용가요곡집』에 수록되어 있다. 민족해방 전사 환영가로 조선군사 우리 대장이 들어오니 일본군사 물러가라는 내용이다. 「鑢魂曲」은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시부위원회가 편찬한 『1946년판 조선시집』에 수록된 시로, 조선학병동맹사건을 제재로 하였다. 조선학병동맹사건이란 조선학병동맹 측에서 1946년 1월 16일 우익계 학생 단체인 반탁전국학생총연맹이 주최한 반탁성토타대회 후에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하자 이를 습격한 것을 말한다. 조선학병동맹은 1945년 9월 1일 조직된 단체인데 일제에 의해 강제 징병되었던 학병 출신들 가운데 좌익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

31 송유경, 「신탁통치를 둘러싼 미군정과 좌익세력의 권력대결」, 『부산정치학회보』 제6집, 부산정치학회, 1996, 179~180면.

였다. 이 사건에 경기도 경찰부 무장경찰대가 출동하여 총격을 가함으로써 학병동맹원 3명이 희생되었다.

(전략)

나는 그의어머니라

人民의 兵士! 내아들을 잘알고있었다
가난한 이나라의 人民을 幸福되게 하려고
깃뻘힌 이江山을 다시 아름답게 꾸미려고
내아들과 내아들의 씩씩한 동무들은
軍靴를 신은채 學兵同盟으로 뛰어갔느니라

사랑하는 내아들이

掠奪과 貪慾의 軍國인 日帝軍隊로 끌려간뒤
혹시나 怨痛한 개죽음을 하지않을가 하고
밤마다 꿈마다 너를위해 정성을 다했느니라
解放의 尖兵이되어 소리없는 戰勝鼓를 울리고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내아들이

내아들의 씩씩한 동무들이
祖國을위해 人民의 幸福을위해 「데모크라시즘」 前線에나서
집과 兄弟를 버리고 그리던 學園도 버리고 勇敢하게 싸우던 내아들이
敵이아닌 우리사람의 손에 죽단말이 웬말인가

(후략)

『국민가요집』에 수록된 「일터로 일터로」, 「기억니은 배우세」, 「누에를

치세」도 해방된 조국을 건설하는 데 모두 힘을 합치자는 내용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방 후 윤복진의 시적 방향은 좌익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하였으면서도 계급투쟁적 입장을 드러내었다기보다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며 새 조국을 건설하자는 등 민족적인 현실을 담아내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트러스트췌이 뭐냐」, 「진혼곡」과 같이 좌우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다룬 시도 없지 않다. 이는 조선문학동맹이나 조선문학가동맹의 시각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대적 시각에서 보면 통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찬탁이 옳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조선학병동맹 ‘강령’에서 밝혔듯이 제국주의 세력을 철저히 구축(驅逐)하여 완전한 민족 해방을 기하고 신조선 건설의 추진력이 되고자 한 학병동맹의 노선이 민족을 위해 옳았다고 본 결과였을 수 있는 것이다.

윤복진의 민족의식은 해방 후 그의 행보와 더불어 증폭된 느낌이 없지 않다. 갑작스런 돌출이라기보다 이전부터 그의 문학적 태도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윤복진의 작품에 당대의 현실을 직시하는 작품이 의외로 많은 것을 그 근거로 삼을 만하다. 해방 전 윤복진의 동요 가운데 현실인식이 드러난 작품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작품명	게재지	게재연도	비고
1	북간도로 가신 아버지	《시대일보》	1926.5.2	
2	두만강을 건느며		1926	류희정 ³²
3	쫓겨난 부엌데기		1927	류희정(199면)
4	가을밤	《중외일보》	1928.10.13	
5	나무넙 ³³	《조선일보》	1928.12.5	
6	팔러가는 우리 황소		1928	류희정(206면)
7	아버지	《중외일보》	1929.2.21	
8	그리운 그 밤	《중외일보》	1929.2.22	

9	참새야! 제비야!	《중외일보》	1929.3.4	
10	할머니의 노래	《중외일보》	1929.3.18	
11	고기잡이 아들	《중외일보》	1929.5.4	
12	스므하로밤	《중외일보》	1929.5.22	
	스무하로 밤 ³⁴	《조선일보》	1930.1.4	신춘문예 당선작
13	은행나무 앞에서	《동아일보》	1929.9.29	
	은행나무 아래서	《조선일보》	1929.10.5	金水郷
14	떠나가신엄마	《중외일보》	1929.10.4	金水郷
15	(民謠)방아찢는색씨의노래	《중외일보》	1929.10.28	
16	(民謠)이 쌍이 거리	《조선일보》	1929.11.6	
17	이삭 준는 어머니 노래	《중외일보》	1929.11.15	
18	우리야 마실	《조선일보》	1929.11.24	
19	봐라 참새야	《중외일보》	1929.11.26	
	새보는 아가의 노래 ³⁵	『兒童歌謠曲選 三百曲』	1936	강신명 편, 朴泰俊 曲
20	할머니의 노래	《중외일보》	1929.3.18	
	한머니의 노래	《조선일보》	1930.1.18	金水郷
21	울지 마세요	《중외일보》	1930.1.18	
22	다러간 부엌덕이	《중외일보》	1930.2.6	
23	산새 들새 춤갯네	《중외일보》	1930.2.24	
24	쪽도리솿	《중외일보》	1930.8.19	
25	도라오는 배	《중외일보》	1930.8.25	水郷
26	선생님 알긋드라	《조선일보》	1930.8.26	
27	(민요)젊은이의 노래	《조선일보》	1930.9.4	
28	송아지 팔너 가는 집	《중외일보》	1930.9.6	水郷
	(그림동요)송아지팔러가는집	《동아일보》	1931.3.4	全鳳濟 畫
29	기차가 달어오네	『어린이』	1930.9	
30	나는 나는 실혀요	《조선일보》	1930.10.1	
31	후여 딱딱 참새야		1930	류희정(211면)
32	우리 애기 노래—피오닐의 노래	《동아일보》	1932.2.28	金水郷
33	가을밤	《조선일보》	1933.9.17	
34	깜박깜박—실감으며 조년애보고	『新家庭』	1935.2	

	(동요곡)깜박깜박	『童話』	1937.1~2	朴泰俊 曲
35	여기는 땀빛 나고	『아이생활』	1936.6	
36	가을	『童話』	1936.9	
37	나무없다부-영 랑식없다부-영	《동아일보》	1937.10.24	

윤복진은 작품을 발표한 후 여러 번 개작하였는데 개작을 통한 재발표 작품을 제외하고 약 260여 편의 동요(동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³⁶ 그 가운데 위의 목록 중 북한에서 발간한 류희정의 책에 수록된 4편을 제외하더라도 민족의 현실인식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 33편이나 된다. 앞서 원종찬도 9편의 작품을 들어 윤복진이 “고통스러운 시대현실을 담아낸 작품”³⁷을 썼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이 1920~30년대 『신소년』, 『별나라』 그리고 『(푸로레타리아 동요집) 불별』(중앙인서관, 1931)에 수록된 계급주의 아동문학 작품들처럼 노골적으로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고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북간도(北間島)나 일본으로의 이산(離散)이나, 노동현실, 가난 등이 암시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식민지 피지배 국민의 궁핍한 삶을 담아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있어 북간도는 디아스포라(diaspora) 곧 이산의 땅이었다. 북간도행은 힘들고 고단한 조선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32 류희정, 『1920년대 아동문학집(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196면.

33 「나무넙」(《중외일보》, 1928.2.1)과 내용이 다르다.

34 이 작품은 「스브하로밤」(《중외일보》, 1929.5.22)을 개작한 작품이고, 『兒童歌謠曲選三百曲』에 수록된 동요곡은 《조선일보》에 발표된 동요와 동일한 내용이다.

35 강신명 편, 『아동가요곡선삼백곡』, 평양, 농민출판사, 1936. 「봐라 참새야」와 같은 내용의 동요다.

36 윤복진은 『꽃초롱 별초롱』의 머리말에서 “지난 스물 일곱해 동안에 신문과 잡지에 발표된 천여 편의 나의 동요에서 마흔 네 편을 추려 모은 것”이라 하였으나, 현재 그의 작품 전체가 천여 편이 되는가는 확인이 어렵다.

37 9편의 작품은 「스무 하루 밤」, 「이삭 줍는 어머니 노래」, 「봐라 참새야」, 「달아난 부엌택이」, 「기차가 달려오네」, 「쪽도리꽃」, 「선생님 알곶더라」, 「송아지 팔러가는 집」, 「가을밤」(《조선일보》, 1933.9.17) 등이다. 원종찬, 앞의 글, 302면.

이산의 원인임을 말하는 것이다. 북간도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시선이 있는가 하면(「북간도로 가신 아버지」), 북간도로 떠나고 임자 없는 빈집에 쪽도리꽃만 피고(「쪽도리꽃」), 「참새야! 제비야!」에서는 북간도로 떠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런 현실이 그려지기도 한다.

참새야!

하연눈이 퍼억퍼억 오는겨울엔

우리집에 여섯식구 엇지산다니

압뒤뜰에 눈도팔고 밧도팔어도

삼백량이 못되다니 엇지산다니

4

제비야!

뒷마을에 입분이는 돈에팔니고

아랫마을 우막집에 늙은내외는

정든자에 서른눈물 남겨두고서

눈나리는 북간도로 썩나갓단다 (「참새야! 제비야!」)

북간도 외에도 북해도(일본)도 가족 이산의 주요 배경지이다. ‘물건너간 우리옴바 타고오는가’(「도라오는 배」) 기다리고, 북해도(北海道) 탄광에 가 십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낭군을 그리워하는 색시를 민요의 형식으로 그린 「방아 찧는 색씨의 노래」 등이 그 예이다.

윤복진이 1936년 여섯 해만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조국의 현실은 여전히 엄마는 푯나물 캐고 아버지는 도라지를 캐 양식을 대신하지만 “내 고향은 그 정다운 노래를 다 잊어”버리고 쓸쓸해진 모습이다. 가족은 해체되고 보리와 조로 연명하던 양식마저 끊어진다.

우리누님 강건너 시집에가고

우리옴바 돈벌러 북해도가고

(후렴 생략)

머 - L산에 진달네 한창피는데

우리집 보리가을 상구도떨었다

(후렴 생략)

래일모래 보리양식 끊어지구요

래일모래 조량식 끊어진대요 (「여기는 땡빚나고」)

(후렴 생략)

이와 같이 가난한 삶은 윤복진의 동요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일하러 읍내 간 엄마가 늦어 젓 달라고 우는 아이를 달래는 할머니(「할머니의 노래」), 과선한 뱃조각이 밀려온 어촌에 고기잡이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고기잡이 아들」), 오 영감 빛과 순이 집 좁쌀 값에 줄려 월급 타는 날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스무하로밤」), 들에 가신 엄마를 기다리며 누나하고 저녁밥을 지어두고 기다리는 남매(은행나무 앞에서), 나를 두고 떠나가신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떠나가신 엄마」), 아기까지 나와 이삭을 주워 모으고(「이삭 준는 어머니 노래」), 흥년이 들어 참새더러 나락을 까먹지 말라고 애원하기도 하고(「뵈라 참새야」), 공장에서 실 뽑는 어머니가 월급 타는 날 밤이 늦도록 안 오시는 현실(「스무하로 밤」), 부모 없이 팔려온 부엌대기 시골아가기가 설달 추위에 달아나고(「다려간 부엌대기」), 월사금이 없어 추운 아침에 학교에서 쫓겨나는 아이(「선생님 알곳드라」), 누른 벼가 익고 옥수수가 알이 차건만 우리 집 송아지를 팔아야 하는 현실(「송아지 팔너 가는 집」), 달려오는 기차를 보고 제사 공장에 간 순이가 돈을 벌러 돌아오는가 바라보는 순이 엄마(「기차가 달어오네」)와 물레를 지어 실을 뽑는 누나를 그리워하는 동생(「가을밤」), 그리

고 실 감으며 조는 어린 순이의 모습과(「깜박깜박」) 겨울이 오기 전에 누나와 단풍잎을 꺾어모아야 하는 유년 노동의 현실(「가을」) 등으로 다양하다.

투옥은 사상적 이유이거나 현실에 대한 저항의 상징적 사건이거나 표현이다. 윤복진의 동요(동시)에 감옥이 언급되는 예가 다수 있는데 이는 작가가 민족 현실에 대해 외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쟁마지기 다팔고 개와집팔고/한끼한끼 못먹어 우는이밤엔/두해전에 옥에간 아버지하고”(「그리운 그 밤」), “건너마실 김서방 ××들어가고/글방집장 리서방 ××로갓네”(「이 쌍이 거리」)라며 이 땅의 거리에 사람이 없어 쓸쓸함을 노래하고 있고, 「우리야 마실」에서는 우리 마을이 궁핍해져 가고 사람들이 흩어져가는 모습을 그렸는데 조선인들이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고 일제의 경제적 지배하에 궁핍해져가는 식민지 현실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압마실 논밭해 신작로나드니
 칼찬나리 마실에 새대감나고
 읍내길 신작로 자동차오드니
 김서방 대국가고 리서방일본가네
 에헤야테야 에헤야테야
 우리야마실 궁해저가네

(중략)

도화분 앵화분 맵씨도나드니
 구라무 왜분이 웬말이든가
 봉선이 옥선이 공장에가드니
 애비만흔 자식을 나하오드네
 에헤야테야 에헤야테야

우리나마실 란해저가네 (「우리야 마실」)

현진건(玄鎭健)이 「고향」(『조선의 얼굴』, 글벗사, 1926)에서 조선의 현실을 두고 ‘벗섬이나 나는 전토는/신작로가 되고요//말마디나 하는 친구는/감옥소로 가고요//담뱃대나 터는 노인은/공동묘지로 가고요//인물이나 좋은 계집은/유곽으로 가고요’라 표현한 것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현실 인식이다.

한탄만 하고 수동적으로 현실을 그리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굳은 결의를 내보이는 작품도 있다.

(전략)

이고기 이피는 다주어도

우리맘 하나만 팔지말게

우리야 이땅의 젊은사람

열두번 짚어도 굶질안네

한울이 바다가 된다해도

이뜻은 언제나 변치말게

우리야 이땅의 젊은사람

소나무 가치도 푸르다네 (「젊은이의 노래」)

‘우리맘 하나만 팔지 말’아야 하고 하늘이 바다가 된다 해도 ‘변치 말’아야 하며 ‘열두번 짚어도 굶질 안’아야 하는 ‘소나무’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소나무 같은 정신을 이 땅의 젊은이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친구야 그 발자욱 밟지말어라
어린벗이 지나며 남긴발자욱

친구야 죄진발로 밟지말어라
어머니의 맘가튼 착한발자욱

친구야 거리거리 나가보아라
흰눈가튼 발자욱 어디잇든가

친구야 어린벗의 발자욱안에
비닭이의 순한맘 소복고였지

친구야 그대들은 기다리는가
금수강산 이짜에 쫓피는날을

친구야 그날을 바라보거든
어린벗의 발자욱 밟지말어라³⁸ (「발자욱」)

어린 벗의 착한 발자국을 죄진 발로 밟지 말라고 한다. 여기서 발자국은 단순히 눈 위에 찍힌 모습이 아니다. ‘그날을 바라보거든’ 밟지 말라고 했고, ‘그날’은 바로 ‘금수강산 짜에 쫓피는 날’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동요(시)에 민족의 현실을 담아낸 것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적 사상을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던 윤복진의 아동문학관이 실친된

38 ‘어린벗의 발자욱 밟지말어라’의 오식이다.

예라 하겠다.

兒童에게 넘우 幻想의 노래를 불릴 것도 아니며, 넘우 쓰라린 現實만을 노래할 것도 아니다. 兒童은 思想家가 아니다. 純眞無垢한 歌人이며 音樂家이다. 우리의 兒童에게는 무엇보다 民族意識을 鼓吹하여 주자. 우리의 ×을 ×게 하자. 이스라엘 民族 中 유대인은 비록 二千年 前 國家는 업서졌다마는 그들의 魂은 가는 곳마다 發見할 수가 있지 안흔가.³⁹

(중략)

郷土藝術을 낮치 안는가. 民族性을 超越하여 世界를 한 나라 가티 人類를 同族 視하라고 한다. 決코 그 부르지즘이 錯誤된 것은 안니다만 兒童에게는 民族的 意識을 鼓吹해주어야겠다. 이 民族이 漸漸 民族性을 忘却하지 안는가. 우리 兒童에게는 民族的 思想을 把握케 하자!⁴⁰ (밑줄 인용자)

윤복진의 아동문학관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평론이 「삼신문의 정월 동요단 만평」인데 아동에게 ‘민족의식을 고취’, ‘우리의 ×을 ×게 하자’, ‘민족적 의식을 고취’, ‘민족적 사상을 파악’ 할 것을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윤복진의 민족의식과 민족 사상의 밑바탕에는 교사이자 대구지역 민족 운동가였던 이만집(李萬集) 목사의 영향이 한몫 했을 것이다. 윤복진이 대구의 남성정(南城町)교회(현 제일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세 살 때인 1910년부터이고 1921년에 이만집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⁴¹ 이만집은 1909년 남성정 교회의 장로가 되어 선교활동을 하였고, 1918년에 목사로 취임

39 윤복진, 「三新聞의 正月 童謠壇 漫評(六)」, 《조선일보》, 1930.2.8. 복자(伏字)는 ‘흔’과 ‘갓’으로 보인다.

40 윤복진, 「三新聞의 正月 童謠壇 漫評(七)」, 《조선일보》, 1930.2.10.

41 윤복진의 대구 계성학교(啓聖學校) 학적부에 기록된 내용이다.

하였다. 같은 해 대구·경북 지역 청년운동의 요람이었던 교남기독교청년회를 조직하였고, 1919년 3월 8일 대구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3년형을 복역하기도 한 민족 지도자였다.⁴² 1921년 계성학교 학생들의 동맹휴업에도 관여하는 등 일련의 활동으로 미루어볼 때 윤복진의 민족의식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윤복진의 동요에는 민족 현실뿐만이 아니라 계급적 현실을 드러내는 것도 없지 않다. 「나는 나는 실혀요」에서는 글이나 쓴답시고 술집에나 다니고 화장이나 하는 서울 언니들보다 호미잡고 밭 매고 가을 밤 벼틀에 앉아 배 짜면서도 등잔불 아래에서 짚신 삼고 글공부하는 언니 오빠가 좋다며 유한계층의 언니 오빠를 질타한다. 「우리 애기 노래」는 부제가 ‘피오닐의 노래’라 하여 두드러지게 계급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 보인다. ‘피오닐’은 러시아어 피오네르(pioner)로 무산소년단이란 말이며 노동자 농민 소년들의 단체를 이른다.⁴³ 윤복진이 대구소년회(大邱少年會)에 가입하여 무산아동의 야학을 위해 순회공연을 했던 활동들과 계급적 현실 인식 사이에 일정한 관련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⁴⁴

고물전에

『합비』웃

쓰더입기로

42 정경호, 「대구 3·1만세운동을 주도한 민족지도자 이만집 목사의 자주적 민족신앙 연구」, 『신학과 목회』 제25호, 영남신학대학교, 2006, 231~234면.

43 편집실, 「우리들의 사진」, 『신소년』, 1932년 2월호, 15면.

44 윤복진이 대구소년회에 가입한 사실은 대구계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24년 5월 대구 달성공원에서 춘기대운동회 우승을 기념해 찍은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소년회 활동은 《동아일보》 기사 가운데 「少年討論會」(1924.8.10), 「大邱少年 童話會」(1925.3.2) 「無產兒童의 夜學을 爲하여」(1925.7.11)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찌저진

고무신발

기워신기로,

—무슨무슨

홍일가

무슨허물야. (「우리애기 노래-피오닐의 노래」)

(후략)

일제강점기 조선의 현실은 계급현실과 민족현실이 분리되지 않는다. 하지만 윤복진의 주된 관심사는 계급적 현실보다 민족적 현실에다 방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해방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② 아동문학론의 변모 양상

아동문학관은 아동문학을 보는 관점을 말한다. 윤복진의 아동문학관은 그가 남긴 비평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요작법과 같은 기술비평을 제외하면 윤복진의 비평문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작품명	게재지	게재연도	비고
1	三新聞의 正月 童謠壇 漫評	《조선일보》	1930.2.2~12	9회 연재
2	尹石重 氏 童謠集 「억계동무」를 읽고	《매일신보》	1940.7.30	
3	兒童文學의 當面課題-民族文化 再建의 核心	《조선일보》	1945.11.27~28	2회 연재
4	談話室	《兒童文學》	1945.12	
5	兒童文學의 進路	《영남일보》	1946.1.9	
6	兒童에게 文學을 어떻게 입힐가	『인민평론』	1946.3	창간호
7	跋文-나의 兒童文學觀	『꽃초롱별초롱』	1949	아동예술원
8	석중과 목월과 나	『시문학』	1950.6	

해방 후 윤복진의 문학관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글은 해방 후 석 달여 지난 시점에서 발표된 「아동문학의 당면과제—민족문화 재건의 핵심」이다. 해방된 나라의 아동문학이 맞닥뜨린 과제를 모색한 글인데 요지는 다음 몇 가지로 추릴 수 있다. “兒童에게 凶穢한 封建的 殘滓를 一掃케 하고 野蠻的인 日本帝國主義와 軍國主義의 餘喘를 清算”하고, “進步的 民主主義的 方向으로 領導”해 나가야 하며, “童心! 童心! 童心이라고 빙자하고 허무맹랑한 邪路로 彷徨”하지 말아야 하고, “科學的 土臺 위에 文化全域 위에 進步的인 兒童文學을 再建”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凶穢한 國粹主義”를 버리고 “『日本的』 『日本色』이란 것을 우리의 感情에서 우리의 言語에서 追放”하자고 한다.⁴⁵

뒤이어 《아동문학》의 「담화실」에서 “植民地 民族만이 갖는 誤謬된 兒童文學觀은 한시바빠 清算”하고 “正確한 科學的 敎養과 高尚한 情緒의 薰陶”⁴⁶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46년 1월 《영남일보》에 발표된 「아동문학의 진로」는 「아동문학의 당면 임무」와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순수니 동심이니 하는 데서 벗어나 아동에게 “「現實」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하겠고 바른 人民의 思想과 社會로 誘導”해야 하며 “現代의 人民에 要求하는 똑바른 政治思想 위에 兒童文學을 再建”⁴⁷하자고 하는데, ‘현실’과 ‘정치사상’을 좀 더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3월에 발표된 「아동에게 문학을 어떻게 읽힐가」는 아동을 조국의 한 인민으로 영도하기 위해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와 세계의 한 아동으로 영도하기 위해 “健全한 모랄에 위에 立脚”⁴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46년

45 윤복진, 「民族文化再建의 核心—兒童文學의 當面任務(上下)」, 《조선일보》, 1945.11.27~28.

46 윤복진, 「담화실」, 《아동문학》, 1945.12.

47 윤복진, 「兒童文學의 進路」, 《영남일보》, 1946.1.9.

48 윤복진, 「아동에게 문학을 어떻게 읽힐가」, 『인민평론』 창간호, 1946.3. 60면. 정영진은 ‘모랄’을 두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윤복진이 말한 <모랄>이란 말이 그 시절의 문학 분위기로 보아 무엇을 뜻하는가는 자명하다. (중략) 이제부터라도 아동들에게 계급의식을 심어주겠다는 각오로 인식된다.”(정영진,

3월 낙향하여 대구에서 발간한 『초등용가요곡집』의 말미에는, “빛나는 母國의 歷史와 文化와 藝術을 相續하게 하여 새로운 歷史와 文化와 藝術을 創造케 하여 널리 世界에 빛내게 하자!”⁴⁹고 하는 데서도 우리말의 미와 우리의 아름다운 정서를 알리자고 하는 등 민족주의적 색깔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

윤복진이 일제강점기 자신의 문학을 직접 반성하고 있는 것은 『꽃초롱 별초롱』의 발문(跋文)에서다.

그 뒤, 封建時代와 그 前 時代에서 賤待만 받아오던 兒童을, 人間 以上の 人間으로 떠받쳐 現實의 兒童을 仙女나 天使로 崇尚하려던 時代도 있었다. 나도 그런 한 過誤를 犯한 사람의 한 사람이다. (중략)

兒童을 人間 以前의 人間이나, 人間 以下의 人間으로 取扱하는 封建時代의 兒童觀도 不法한 것이지만, 兒童을 超時間的, 超空間的인 存在처럼 信仰하며, 現實의 兒童을 偶像化시켜 謳歌하는 近代 浪漫主義者의 童心至上主義 乃至 天使主義의 兒童觀은 더욱 不法하고, 不當한 것이다.⁵⁰ (밑줄 인용자)

“兒童을 現實的으로 科學的으로 冷徹하게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童謠文學을 民主主義的 科學的 兒童觀에 立脚”⁵¹하도록 하자는 것이 반성 뒤에 제시된 새로운 방향이다. ‘동심지상주의 내지 천사주의의 아동관’을 반성하고 새롭게 지향할 목표로 내세운 것이 ‘현실’과 ‘과학’으로 요약된다.

「동요시인 尹福鎭의 反轉劇」, 『현대문학』 제454호, 1992년 10월호, 372면)고 하였다. 그러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모랄’이 ‘계급’을 의미하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해 정영진이 오독한 것이다.

49 윤복진, 「어린 빛을 사랑하는 親愛하는 同志들에게!」, 『초등용가요곡집』, 파랑새사, 1946.3, 33면.

50 윤복진, 「跋文 나의 兒童文學觀」, 『꽃초롱 별초롱』, 아동예술원, 1949.8, 120~121면.

51 위의 글, 121~122면.

윤복진의 음악론도 문학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면 새로이 樹立되는 新朝鮮音樂은 어떠한 音樂이어야 할 것인가. 內容(形式에 있어서도)에 있어서는 十八·九世紀의 特權階級 卽 王室 貴族 뿌르조아지의 音樂物 또는 娛樂物로 寵愛받던 封建的 貴族의인 살롱 音樂에서 叛旗를 높이 들고 農民 勞働者의 勤勞層과 및 인텔리겐자를 對象으로 한 人民의 音樂 進步의 民主主義 音樂藝術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進步의 民主主義 또는 新民主主義의 路線은 비록 音樂뿐만 아니라 朝鮮의 모든 藝術이 그 길을 通하지 않고는 存在할 수 없으면 成長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歷史的 宿命的 路線으로써 싫든지 좋든지 願든지 願치 않든지 間에 이 路線을 밟아가야 할 것이다.⁵² (밑줄 인용자)

문학은 더 포악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建設的인 文人들은 新朝鮮文學의 樹立을 꾀하고 그 빛나는 創造의 方向으로 尙해 漸進하였었고 좋은 成果”를 보였는데 음악은 조상의 고귀한 유산도 계승치 못하고 과학적인 서양음악을 수용하지도 못한 채 “荒涼한 未開地”로 남아 있다는 진단 후에 신조선음악의 방향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인텔리겐치아를 대상으로 한 진보적 민주주의 음악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지이다.

해방 후 윤복진의 아동문학관은 「아동문학의 당면과제」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그 후의 여러 글들은 이를 부가 설명한 것이거나 분명히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이 윤복진으로 하여금 이러한 문학관으로 변모하게 하였었고, 새로운 아동문학관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아동문학의 당면과제」는 봉건 잔재와 일본제국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52 김수향, 「新音樂 樹立에로」, 『조광』, 제12권 제1호, 1946.3, 26~27면.

진보적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임화, 김남천이 중심이 되었던 ‘문건’의 주장과 연결된다. “1) 정치혁명과 아울러 문화, 혹은 문학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2) 현 단계가 정치적으로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 단계인 만큼 문학혁명 역시 프로문학이 아닌 인민적 신문학 건설을 의도해야 한다는 점, 3) 현 단계의 과업으로 일제 잔재와 봉건 유제의 청산, 국수주의의 배격, 부패한 시민문화의 삼체를 들고 있는 점, 4) 그 구체적 방략으로 문학통일전선의 형성을 주장하며 대중화 및 계몽운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⁵³ 등이 ‘문건’이 표방한 문학이론의 요지이다. 이 내용은 1946년 2월 8일 조선문학자대회에서 임화가 발표한 「조선 민족문학 건설의 기본 과제에 대한 일반 보고」의 내용과 일치한다. 일제 잔재와 봉건 유물의 잔존을 청산해야 하고 조선이 아직 모든 영역에 있어 민주주의적 개혁이 수행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급 문학이 아니라 “近代的인 意味의 民族文學”을 추구해야 하며 이것이 “보다 높은 다른 文學의 生成, 發展의 唯一한 基礎”라 하였다. ‘보다 높은 다른 문학’이 계급문학을 뜻한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선택할 문학은 ‘근대적인 의미의 민족문학’임을 분명히 하였다.⁵⁴ 이에 앞서 1945년 11월 15일에 발간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기관지 《문화전선》에는 임화의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임무」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1945년 8월 20일에 발표된 박헌영(朴憲永)의 ‘8월 테제’(이하 ‘테제’) 곧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를 수용한 것이다. 박헌영의 ‘테제’가 임화를 중심으로 한 ‘문건’으로 수용되고 윤�복진도 이를 따른 것이다.⁵⁵

53 최성윤, 「해방기 좌익문학단체의 성격과 ‘민족문학론’의 전개」, 『국어문학』 제58집, 국어문학회, 2015년 2월, 483면.

54 임화, 「조선 민족문학 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보고」, 『건설기의 조선문학』, 조선문학가동맹중앙집행위원회서기국, 1946, 41면.

55 ‘문건’의 설립(1945년 8월 16일 또는 17일)과 ‘8월테제’(1945년 8월 20일) 발표 일자를 들어 ‘문건’ 발족에 박헌영의 영향을 부정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문건’의 노선이 박헌영의 영향 밖이라고 볼 수는 없다.

‘테제’는 1945년 8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박헌영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었고, 9월 25일 수정본이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발표되었다. ‘테제’는 조선 혁명의 현 단계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보고 가장 중요한 과업을 ‘완전한 민족적 독립의 달성과 농업혁명의 완수’로 제시하고 있다. 봉건과 친일에 의한 자본주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런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인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인민 정부를 수립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고 도시 소시민과 인텔리겐치아가 참가해야 한다고 하였다.⁵⁶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 후 1945년 8월 20일 박헌영의 ‘테제’가 조선공산당의 정치 노선으로 확립되었다. 임화, 김남천 중심의 ‘문건’(1945.8.16),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1945.8.18)가 송영, 이기영, 한철야 중심의 ‘동맹’(1945.9.17),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1945.9.30)과 대립하였으나 조선공산당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운동노선을 승인하고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이 합류할 것을 명령하자 임화, 김남천, 이태준이 주동이 되어 조선문학동맹(1945.12.13)이 결정되었다. 이후 조선문학자대회(1946.2.8~9)를 거쳐 조선문학가동맹이 결성된 것이었다. 조선문학자대회에서 발표된 임화의 「朝鮮 民族文學 建設의 基本課題에 關한 一般報告」도 그랬지만, 박세영(朴世永)의 「朝鮮 兒童文學의 現狀과 今後 方向」도 ‘테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 박세영은 해방 후 아동문학은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 잔재를 청산하고 오늘날 정치노선은 프로레타리아 혁명단계가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단계인 만큼 진보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朝鮮 兒童文學의 核心問題도 實로 이 進歩的 民主主

56 박헌영,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이정 박헌영 전집 2』, 역사비평사, 2004, 47~56면.

義의 길로 指向하므로서만 그 正常한 發展이 있고 解決할 수 있는 問題”라며 “兒童文學 專門作家의 思想을 疑心하게 되고 進歩의 民主主義의 實踐者가 못 되었다는데서 그들의 反省”을 촉구하고 있다.⁵⁷

윤복진이 월북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은 1950년 6월에 발표된 「石重과 木月과 나—童謠文學史의 하나의 位置」이다.

石重이 木月이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새로운 時代의 옷을 갈아입어야 하겠다. 또 하나의 里程標를 세워야 하겠다. 우리는 그래도 늙어서 우리의 呼吸은 느린데 時代는 벽찬 呼吸을 하고 있다. 어떻게 心臟이 “스톱”되는 限이 있더라도 다시 한 番 옛 情熱로서 時代를 따라가 보자! 새로운 時代의 또 하나의 “이대음”과 “포름”을 만들어보자! 다른 하나의 石重이가 되어보자구나. 다른 하나의 木月이가 되어보자구나! 다른 하나의 내가 되어보자구나! 1950.4.1⁵⁸

이 글의 앞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소회를 섞어 윤석중과 박목월 그리고 윤복진 자신이 우리 동요문학사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30년 가까이 살아오는 동안에 “세상은 變하고 文學도 變해진 것 같”는데 “우리 셋은 그만 ‘踏步’를 하는 것 같”고 “우리 셋은 ‘스람프’에 빠진 것 같”으며 “우리 셋은 ‘時代’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는 비판적 반성으로 이어진다. 요지는 마지막에 있는데, 청유형(請誘形) 문장이다. 새 시대의 이념과 형식을 창출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는 요청이자 권유다. 윤복진에겐 그 실천적 행동이 월북이었다.

57 박세영, 「朝鮮 兒童文學의 現狀과 今後 方向」, 『건설기의 조선문학』, 조선문학가동맹중앙집행위원회서기국, 1946, 109면.

58 윤복진, 「石重과 木月과 나—童謠文學史의 하나의 位置」, 『시문학』 제2호, 1950.6.

3. 맺음말

윤복진의 아동문학 작품과 문학론 그리고 해방 후 문단 행보를 종합해 그의 월북의 이유를 밝혀보았다. 지금까지 동향의 친구 신고송과의 관련, 좌익 심파, 열등감으로 인한 월북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부분적 일리는 있지만 종합적인 해명에는 미흡했다.

윤복진의 아동문학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해방 후부터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을 표 나게 드러내는 게 사실이다. 문학론은 일제강점기의 자기문학을 비판적으로 반성함과 동시에 해방 후 좌익 문인들의 단체인 ‘문건’과 조선문학가동맹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작품은 일제 잔재 청산, 해방된 새 나라 건설, 신탁통치, 학병동맹 등 당대의 민감한 현실을 분명히 담아내고 있다. 문단 행보 또한 조선문학동맹, 조선문학가동맹으로 이어지는 좌익 문학단체에 가맹하고 문단 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윤복진의 이러한 변모가 당대의 시류를 포함한 외적 환경에만 있다고 하기 어렵다. 느닷없는 개종이나 갑작스런 변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그의 문학론에서도 민족의식의 고취와 민족사상의 파악을 강조하고 있었고 작품적 실천도 적지 않았다. 대구지역 민족운동가였던 이만집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대구소년회 활동을 했던 것들도 민족의식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 말기 친일문학론과 작품을 발표했던 어느 문인들과 달리 그만한 지명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식의 훼손과 관련된 행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해방 후 윤복진의 작품과 문학론 그리고 문단 행보는 삼위일체로 좌익 활동에 동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두드러지게 계급을 내세우지 않는다. ‘태제’를 수용한 좌익 문학단체들의 노선이 계급혁명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단계로 규정한 것을 수용한 때문이다. 윤복진에게는 거부감

없이 ‘문건’과 조선문학가동맹에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해방 후 신문과 『아동』, 『새싹』 등 잡지에 발표된 몇몇 작품들이 동심을 표현하는 범주에 머물고 있는 것도 모순된 행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부터 계급적 이념에 기반을 두고 문학 활동을 해 왔던 다른 문인들과 달리 윤복진이 6·25전쟁 때까지 남한에 남아 있었던 것도 월북이 자기의 삶과 문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윤복진에게 있어 월북은 선택이었다. 친일과의 득세로 친일 잔재 청산이 무망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의 길이 요원한 데다 혼란스런 남한의 정세와 시국이 그의 선택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한 지 6년여 된 33세의 아내와 어린 두 딸(1944년생, 1946년생)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기와, 당시 좋은 기와집이 12채나 있을 정도로 부유했던 집안 형편을 뒤로 하고 윤복진은 43세의 나이에 월북하였다.⁵⁹ 이상과 같은 제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월북이란 선택을 하는 데 적잖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월북하기까지 윤복진의 행보는 해방 이후 변모된 문학관 혹은 세계관을 일관되게 유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윤복진, 월북, 8월테제, 조선문학가동맹, 부르조아 혁명단계, 진보적 민주주의

59 윤복진의 제적등본과 둘째딸인 윤정희 씨와의 대담(2014년 10월 16일)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외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시대일보》, 《매일신보》, 《문화전선》, 《경향신문》, 《중앙신문》, 《자유신문》, 『아동문학』, 『어린이』, 『아이생활』, 『신소년』, 『별나라』

2. 논문 및 평론

- 九峰山人, 「批判者를 批判—自己辯解와 申君 童謠觀評(四)」, 《조선일보》, 1930.2.23.
- 권영민, 「해방직후의 문단과 월북 문인」, 『한국문화』, 제8집, 1987, 212~216면.
- 김선호,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가입자」, 『역사와 현실』 제45호, 한국역사연구회, 2002, 293~329면.
- 김중현, 「윤복진 동시의 담론 구성체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2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06.
- 박세영, 「朝鮮 兒童文學의 現狀과 今後 方向」, 『건설기의 조선문학』, 조선문학가동맹중앙집행위원회서기국, 1946, 96~110면.
- 박현영,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이정 박현영 전집 2』, 역사비평사, 2004, 47~56면.
- 송유경, 「신탁통치를 둘러싼 미군정과 좌익세력의 권력대결」, 『부산정치학회보』 제6집, 부산정치학회, 1996, 175~195면.
- 申孤松, 「童心에서부터—旣成童謠의 錯誤點, 童謠詩人에게 주는 몇 말(전8회)」, 《조선일보》, 1929.10.20~29.
- _____, 「새해의 童謠運動—童心 純化와 作家誘導(전3회)」, 《조선일보》, 1930.1.1~3.
- 원종찬, 「동요시인 윤복진의 작품세계」,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2001, 295~324면.
- 윤복진, 「담화실」, 『아동문학』, 1945.12.
- _____, 「民族文化再建의 核心—兒童文學의 當面任務(上,下)」, 《조선일보》, 1945.11.27~28.
- _____, 「跋文 나의 兒童文學觀」, 『꽃초롱 별초롱』, 아동예술원, 1949.8, 118~122면.
- _____, 「三新聞의 正月 童謠壇 漫評(전9회)」, 《조선일보》, 1930.2.8~12.
- _____, 「石重과 木月과 나—童謠文學史의 하나의 位置」, 『시문학』 제2호, 1950.6.
- _____, 「兒童文學의 進路」, 《영남일보》, 1946.1.9.
- _____, 「아동에게 문학을 어떻게 읽힐가」, 『인민평론』 창간호, 1946.3, 56~60면.
- _____, 「어린 벗을 사랑하는 親愛하는 同志들에게!」, 『초등용가요곡집』, 파랑새사, 1946.3, 33면.

- 이원수, 「동일승천(冬日昇天)한 나비 최병화 형」, 『이원수아동문학전집 29 동시동화작법』, 웅진출판주식회사, 1984, 176~177면.
- 임 화, 「조선 민족문학 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보고」, 『건설기의 조선문학』, 조선문학가동맹중앙집행위원회서기국, 1946, 27~42면.
- _____,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임무」, 『문화전선』, 창간호, 1945.11.15.
- 정경호, 「대구 3·1만세운동을 주도한 민족지도자 이만집 목사의 자주적 민족신앙 연구」, 『신학과 목회』 제25호, 영남신학대학교, 2006, 229~256면.
- 정영진, 「동요시인 윤복진의 반전극」, 『현대문학』 제454호, 1992년 10월호, 366~376면.
- _____, 「월북 입북 남북 재북 문인 행적기」, 『다리』, 1989년 10월호, 244~265면.
- 조두섭, 「낮꿈꾸기의 비애, 윤복술」, 이강언, 조두섭 편, 『대구경북 근대문인 연구』, 태학사, 1999, 107~121면.
- 최성운, 「해방기 좌익문학단체의 성격과 '민족문학론'의 전개」, 『국어문학』, 제58집, 국어문학회, 2015년 2월, 477~498면.
- 최윤정, 「북으로 간 동요시인, 윤복진」,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7호, 2009.12, 130~155면.

3. 단행본

- 강신명 편, 『아동가요곡선삼백곡』, 평양, 농민출판사, 1936.
-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 류희정, 『1920년대 아동문학집(1,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1994.
- 박태준, 『박태준동요작곡집』, 음악사, 1949.
-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 청동거울, 2012.
- _____,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2001.
- 윤복진 편, 『초등용가요곡집』, 파랑새사, 1946.3.
- _____, 『동요곡보집』, 북명유치원하기보모강습회, 1929.
- _____, 『물새발자욱』, 교문사, 1939.
- 윤석중, 『어린이와 한평생』, 범양사출판부, 1985.
-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 조선문학가동맹중앙집행위원회서기국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1946.

4. 기타

- 「서울市 만 一萬二千 學生 勞動層이 首位」, 《동아일보》, 1949.12.2.
- 「詩의 밤 大盛況」, 《동아일보》, 1946.4.22.
- 「詩人の 집 建設」, 《동아일보》, 1946.2.21; 《자유신문》, 1946.2.23.

- 「아동문학가협회 결성」, 《경향신문》, 1949.5.3.
「兒童文學委員會서 『兒童文學』 發刊月二回, 十二月 初부터」, 《중앙신문》, 1945.11.22.
「兒童創作品 募集」, 《자유신문》, 1946.9.5.
「作故詩人碑—詩人の 집'에서 計劃」, 《중앙신문》, 1946.2.20.
「작품으로 정서함양—아동문학가협회」, 《동아일보》, 1957.4.22.
「著名한 文化人の 自進加盟이 異彩」, 《동아일보》, 1949.12.1.
「전조선문필가협회 결성」, 《동아일보》, 1946.3.11.
「조선문학가동맹 위원 명부」, 『문학』, 제1호,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1946, 153면.
「조선문학동맹 결성, 각부 위원 결정」, 《자유신문》, 1945.12.25.
「現代詩 講座」, 《현대일보》, 1946.5.31.
편집실, 「우리들의 사진」, 『신소년』, 1932년 2월호, 15면.



Abstract

Children's Literature of Yoon Bokjin and His Defect from South Korea

Ryu Duckjee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change in poet Yoon Bokjin's children's literature works, and the reason he went to North Korea after the emancipation period.

Yoon Bokjin defected from South Korea in 1950s. Most of his poetries were lyrics, an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e had never had proletarian ideologies. It was generally proletarian ideologist writers who defected from South Korea after the emancipation period. Since Yoon was not a proletarian ideologist, his defect to North Korea is strange and unclear.

Till now, three reasons have been suggested for Yoon's defection. First reason cited his friend Shin Gosong's influence. Second was that he was a leftism sympathizer, and third was that he may have suffered from inferiority complex about poet Yoon Seokjoong.

This thesis, however, aims to explain that Yoon's defection to North Korea stems from his conversion to socialism after emancipation. Yoon joined leftist organization, and followed its doctrines. He expressed regrets about his previous literary conduct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announced to become a pro-communist. Furthermore, his

articles coincided with ‘August These(8월 테제)’ of Park Heonyeong.

His conversion to socialism notwithstanding, it is unlikely that Yoon was a staunch communist. Rather, he aligned himself with communists who argued for bourgeois revolution and progressive democracy, such as August These. This bears resemblance to the nationalist ideas he expressed through literary work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owever, Korea after emancipation failed to clear off pro-Japanese collaborators. Yoon had little hope for right-wing party, and believed that the left-wing party should establish a new country. This and several other reasons compelled him to go to North Korea.

To conclude, Yoon joined the left after the emancipation, but as a nationalist kind he wa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is for this reason that he defected from South Korea voluntarily.

■ Keywords: Yoon Bokjin, defect to the North, August These, The Ally of Writer of Korea(조선문학가동맹), Bourgeois Revolution, Progressive Democracy

■ 논문접수일: 2015. 10. 30 / 심사기간: 2015. 11. 10~11. 30 / 게재확정일: 2015. 12. 10